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06호 【루계 제25980호】 주제107 (2018) 년 4월 16일 (월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고 당중앙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뜻깊은 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만수대언덕으로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식민지약소민족의 눈물만이 흐르면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고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다함없는 경모의 꽃물결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끊임없는 강성번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맹세와 결의에 넘쳐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5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 해외연고자가족들,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측하단,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하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세계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끊임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